

UAE 대통령, 특사 접견 중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서 접수

2026년 2월 25일 | 아부다비

UAE 대통령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각하는 오늘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각하로부터 양국 간 협력 및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관한 친서를 받았다.

이 친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략적 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각하가 아부다비 카스르 알 바틴에서 열린 접견 중 전달했다.

강훈식 특사는 이재명 대통령 각하가 전하는 안부와 함께 UAE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뜻을 각하께 전달했다. 이에 각하는 특사에게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 안부를 전해줄 것을 당부하며,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지속적인 발전, 그리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한다는 뜻을 밝혔다.

이날 회담에서는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일환으로 UAE-대한민국 협력 발전 상황과 함께, 첨단기술, 인공지능, 경제, 에너지, 방위기술, 교육, 문화 등 우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.

양측은 또한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 각하의 UAE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며,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주요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과 번영을 위한 향후 협력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 주목했다.

이날 접견에는 대통령궁 특별업무 담당 부의장 셰이크 함단 빈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각하와 다수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
<https://www.mohamedbinzayed.ae>